

인성아에게

인성아, 가족이 할아버지밖에 없는데 홍역으로 돌아가셔서
많이 슬프지? 나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매우 슬펐어. 가족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야.
나도 할아버지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슬픈 것 같아. 그러도

너라도 홍역에서 살아남은 게 다행인 것 같아.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께서 진료소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고민하다가 가기로 한

너는 참 대단한 것 같아. 슬픔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너의 모습이 참 멋진 것 같아. 또 정약용 선생님의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본받는 걸 보니 너는 참 심성이 바르구나. 나도 너를 본받고 싶어.

정약용 선생님께서 진료소를 세우시고 일을 하실 때 심부름을 같이 하는

너는 정말 용기있고 바른 것 같아. 나였다면 솔직히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못 나갔을 거야. 너의 할아버지가 두려워서 홍역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안 한 허 의원이 사과했을 때

용서한 너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



인성아, 내가 현재 살고있는 2022년에도 3년째 코로나19바이러스가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어.

그런데 인성아, 그거 아니? 지금도 너와 비슷한 분들이 있어.

바로 코로나 응급 의료진분들이야. 그 분들도 나라와 국민들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 그리고 너가 말하는 '구비복면'과 비슷한 마스크를 모두 열심히 쓰고 있어. 너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태도를 가진 모범시범 같아.

또 정약용 선생님께 항상 어느 한쪽에도 휘말리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백성들을 위해 앞장서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더 많은 백성을 구하길 바란다고 전해줘

너와 정약용 선생님 같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일어나 주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어. 코로나19가 끝나서 다음에는 희망과 기쁨의 소식이 담긴 편지를 다시 보내고 싶어.

그때까지 안녕!

- 코로나19가 끝나길 바라며
2022년 8월 태선아가 -

